

Jthink 2012-JJ-15

# 한중 FTA 대응 선제적 대응방안

- 전북 주요산업 중심 -



# 목 차

제1장 서론 .....	3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체계 .....	3
제2장 한중 FTA의 진행 상황 및 중점 이슈 .....	5
제1절 한중 FTA의 진행 현황 .....	5
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5
2. 한중 FTA의 추진 과정 .....	6
제2절 한중 FTA의 주요 이슈 .....	8
1. 한중 FTA의 구조와 틀 .....	8
2.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제조업 중심) .....	9
제3절 한중 FTA의 기대효과 및 추진 방향 .....	12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	12
2. 한중 FTA 추진 방향 .....	13
제3장 전북의 대중국 무역구조 분석 .....	14
제1절 전북의 대중국 교역 현황 .....	14
1. 전북의 대중국 교역현황 .....	14
2. 전북의 주요 수출입 특성 .....	17
제4장 한중 FTA의 민감품목 분석 .....	18
제1절 민감품목 선정 방법 .....	18
1. 민감품목 의미 .....	18
2. 민감품목 선정 방법 .....	18
제2절 민감품목 선정 결과 .....	23
1. 민감품목 선정 결과 .....	23

제3절 한중 FTA로 인한 전북 산업의 영향력 분석 .....	26
1. 정량분석 .....	26
2. 정성분석 .....	34
<b>제5장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및 활용방안 .....</b>	<b>50</b>
제1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	50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	50
2. 영향력 최소화 방안 .....	54
제2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	58
1. 기업지원 강화 .....	58
2. 지원시스템 개선 .....	59
3. 지원 인프라 강화 .....	60
<b>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b>	<b>61</b>
<b>참고문헌 .....</b>	<b>65</b>
<b>부록 .....</b>	<b>66</b>
부록1. 전국과 전북의 민감품목 분석 .....	66
부록2. 도내 제조업체 대상 한중 FTA 설문결과(경제통상진흥원) .....	69

## 표 목 차

<표 2-1> 중국의 FTA 추진현황 .....	6
<표 2-2> 한중 FTA 추진 과정 .....	7
<표 2-3> 한중 FTA의 구조와 틀 .....	8
<표 2-4> 제조업 분야별 FTA 효과 .....	9
<표 2-5>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기타 이슈별 주요 내용 .....	10
<표 2-6> 한중 FTA 시나리오별 효과 .....	12
<표 3-1> 전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	14
<표 3-2> 전라북도의 대중국 주요수출품 현황 .....	15
<표 3-3> 전라북도의 대중국 수입품목 현황 .....	16
<표 4-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	19
<표 4-2> 수출증가율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	20
<표 4-3> 대 중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	21
<표 4-4>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	22
<표 4-5> 전국의 민감품목 .....	23
<표 4-6> 전북의 민감품목 .....	24
<표 4-7> 전국과 전북의 차별화된 민감품목 .....	25
<표 4-8> 한중 FTA로 인한 무역창출효과 비교 .....	30
<표 4-9> 전국과 전북의 차별화된 민감품목의 무역창출효과 .....	33
<표 4-10> 생산품목 유형별 기업 수 .....	34
<표 4-11> 한중 FTA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35
<표 4-12> 한중 FTA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	35
<표 4-13> 한중 FTA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이유 .....	36
<표 4-14> 한중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이유 .....	36
<표 4-15> 한중 FTA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37
<표 4-16> 주력제품의 수입 여부 .....	38
<표 4-17> 주력제품 중 수입되지 않는 제품의 수입 가능성 여부 .....	38
<표 4-18> 수입되지 않는 제품의 가격 및 제품 경쟁력 .....	39
<표 4-19> 주력 제품의 관세철폐시기 .....	39
<표 4-20> 주력제품의 가격 및 제품 경쟁력 .....	40

<표 4-21> 중점협상 부문 .....	40
<표 4-2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방안 .....	41
<표 4-23> 관심있는 FTA 지원사업 .....	42
<표 5-1> 한중 FTA 통상교섭 조직 .....	54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4
------------------------	---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목적

기존의 지역차원에서의 연구가 FTA 체결 후에 영향력과 활용방안의 모색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었으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향에서 벗어나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전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하여 전북차원의 협상안(민감품목의 선정, 양허기간의 설정, 유보사항의 설정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협상중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체계

본 연구는 큰 틀에서 FTA를 하나의 메가트렌드로 인식을 하고 한중 FTA에 대한 진행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한중 FTA의 주요 이슈를 점검을 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대외거래 차원에서 무역구조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무역구조에 대한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FTA가 체결될 시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선정을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한중 FTA에 대한 전북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제 2 장 한중 FTA의 진행 상황 및 중점 이슈

### 제 1 절 한중 FTA의 진행 현황

#### 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1) 한국의 FTA의 추진 현황

한국은 세계에서 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의 하나로서 10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중이며 최근에 들어서 EU와 미국과의 체결로 경제영토가 크게 확대되었다.

FTA의 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상중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등이 있으며 최근 중국과의 협상의 개시 선언으로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일본, 한중일,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향후 FTA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 중국의 FTA의 추진 현황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의 CEPA 체결을 필두로 아시아, 중남미 등과의 FTA를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대만과의 FTA 체결로 10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나 주요 경제대국과의 FTA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협상중인 나라는 최근 협상개시된 한국을 포함하여 GCC, 호주, 아시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있다.

또한, 인도와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공동연구는 완료되었으나 협상의 개시는 되고 있지 않다.

〈표 2-1〉 중국의 FTA 추진현황

년	기간	내용
기체결 (10건)	홍콩, 마카오	· 2003. 6월 CEPA 체결 · 총 8차례의 CEPA 보충협약(supplements) 체결
	ASEAN	· 2004. 11월 상품무역 협정 체결(2005.7월 발효) · 2007.1월 서비스 협정 체결(2007.7월 발효)
	칠레	· 2005.1월 협상 개시 · 05.11월 상품무역 협정 체결 (2006.10월 발효) · 2008.4월 서비스무역 협정 서명(2010.8월 발효)
	파키스탄	· 2005. 2월 협상 개시, · 20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6월 발효, · 20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5월 발효, · 2009.6월 투자협정 서명, 2009.9월 발효
	뉴질랜드	· 2004.12월 협상 개시 · 2008.4월 협정 서명(2008.10월 발효)
	싱가포르	· 2006.10월 협상 개시 · 2008.10월 협정 서명(2009.1월 발효)
	페루	· 2007.9월 협상 개시· 2009.4월 서명(2010.3월 발효)
	코스타리카	· 2009.1월 협상 개시· 2010. 4월 협정 서명
	대만	· 2010.6월 EFTA 기본협정 서명(2010. 9월 발효) · 2011년 상품·서비스 협상 추진(2011. 2월 협상단 구성)
	협상중	GCC
호주		· 2005.5월 협상 개시, 2011.7월 제16차 협상
아이슬랜드		· 2007.4월 협상 개시, 2008.4월 제4차 협상
노르웨이		· 2008.9월 협상 개시, 2010.9월 제8차 협상
SACU		· 2004년 협상 출범
스위스		· 2011.1월 협상 출범 선언, 2012.2월 제4차 협상
한국		·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2007.3월~2010.5월, 5차례 회의) · 협상 개시(12년 5월)
공동연구	인도	· RTA 공동연구 완료(2003.6월~2007.10월, 6차례 회의)
	한-중-일	·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2010.5월~2011.12월, 7차례 회의)

## 2. 한중 FTA의 추진 과정

### 1) 한중 FTA의 추진 배경

중국이 경제규모에서 G2로서의 부상,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대외 의존적인 한국에 영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중 FTA의 체결은 한국이 주요 경제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로 역동적 경제허브 역할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한중 FTA의 추진 과정

〈표 2-2〉 한중 FTA 추진 과정

년	기간	내용
2004년	2004.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 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년	2005~2007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2007년	2007.03.22~23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
	2007.07.03~04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2007.09.18~19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 농업, 수산업, 임업 등 전문가 회의(상해)
	2007.10.23~25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중국위해)
2008년	2008.02.18~20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2008.04.28~29	한·중 FTA 회기간 회의(북경)
	2008.06.11~13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2010년	2010.02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
	2010.05.23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05.28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07.07	제17차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10.09.28~29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10.12.01	제17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충청)
2011년	2011.04.11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
	2012.01.19~20	한·중 FTA전문가 간담회 개최(서울)
	2012.01.31	한·중 FTA토론회 개최(KIEP주최,서울)
	2012.02.24	한·중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서울)
	2012.03.01~0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2012.03.22~23	한·중 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베이징)
	2012.04.05	한·중 FTA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베이징)
	2012.05.0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2012.05.14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최

자료: FTA종합지원포털(<http://ftahub.go.kr>)

## 제 2 절 한중 FTA의 주요 이슈

### 1. 한중 FTA의 구조와 틀

한중 FTA는 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규범 및 기타 이슈 등 4대 구조로 틀을 이루고 있다.

〈표 2-3〉 한중 FTA의 구조와 틀

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규범, 기타 이슈
제조업, 농림수산업	WTO, GATS W/120 12개 서비스 산업	외자에 대한 비차별	무역관련 규범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 고무 가죽 생활용품 광산품 잡제품, 농림수산업	비즈니스서비스 통신 건설 교육 유통 보건 및 의료 환경 관광 문화스포츠 운송 금융 기타서비스	진입장벽 운영장벽 철수장벽 투명성 결여 지방보호주의 정책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부과금지(Performance Requirement)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SPS(검역규제) TBT(무역기술장벽) 원산지 분쟁해결 환경 무역구제(AD,SG,CD)
관세양허 IP 비관세	GATS(서비스교역체 관한 일반협적)의 서비스공급형태 모델 1-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각종 불합리한 허가요구 각 지방세칙의 차이	국제기구 가입 중앙/지방간 동일한 규정
양허유형(ex) 즉시 3년 5년 7년 10년 예외적 미양허	모델1: 국경간 공급(금융 IDD, 원격교육) Model2: 해외소비(해외치료, 관광서비스) Model3: 상업적 주재(자회사 사무소 설치) Model4: 지연인 이동	설립전 NT 지방협정준수의무 명시 이행요건 부과 금지 송금보장 경영진 국적부과 금지 수용보상기준 명시 공정 및 공평대우	원산지 규정 (역외가공인정) 지재권(기간 집행, 협력) 전자상거래 (무관세 적용) 환경협력

## 2.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제조업 중심)

대부분의 제조업종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의 빠른 기술력 향상, 중국내 제3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확대 될 여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증가하나 부문별로 상이한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민감한 부문은 일괄타결 방식으로 적절히 다룰 것을 보고서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임.

〈표 2-4〉 제조업 분야별 FTA 효과

업종	관세율 비교		FTA 효과
	한	중	
석유 화학	5.93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기술 우위 및 중국의 수요 급증 등을 감안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li> <li>- 단,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 증가 예상</li> </ul>
섬유 의류	9.98	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한국 수출 증가 예상</li> <li>- 단, 고부가가치 품목 관련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li> </ul>
철강	2.5	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상대적 고관세 감안시 한국의 대중 수출 확대 예상</li> <li>- 단, 중국의 공급능력 확대를 감안시 그 폭은 변화 가능</li> </ul>
기계	6.56	8.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33% 가량 높아 한국의 수출 확대 예상</li> <li>※양국 모두 범용제품을 주로 생산하나, 한국은 high-end, 중국은 low-end 제품 생산</li> </ul>
전자	5.4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투자 외국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한 수출도 증가 예상</li> </ul>
자동차 /부품	8	1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FTA에 따른 관세철폐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증가되되, 한국의 대중 투자는 감소 예상</li> <li>• 한국: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중 투자가 지속될 전망</li> </ul>
비철 금속	6.27	6.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이 내수 충족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점 감안시 중국의 대한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li> </ul>
고무	7.13	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예상</li> <li>-타이어는 중국의 수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ul>
화장품	8% 이하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예상</li> </ul>
제지	0.1	6.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저부가가치 품목에서는 중국의 수출이 증가 예상</li> </ul>

자료: 한중 FTA 산학관 공동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10

제조업의 이슈 이외에도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이며 이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이 논의

정부조달에 대해서는 한·중 FTA에서 관련 정보와 경험의 공유방안에 대한 논의 이외에 전자조달을 통한 상호이익 증대 등을 협력하기로 함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는 한·중 FTA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보와 인력의 교환, 다자조약 및 기구상 의무 재확인, 여타 국제협약가입 긍정고려 그리고 관련 법제도 개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협력하기로 함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해결방법은 분쟁해결절차를 별도 챕터로 구성하고 pre-panel절차를 장려하고 패널 결정의 효율적 이행 메카니즘의 마련, WTO 분쟁해결절차와 포럼 선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함

<표 2-5>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기타 이슈별 주요 내용

구분	양자, 다자 차원 논의 현화		향후 협력 방향
	한국	중국	
정부조달	CPA 가입국, FTA 협상 시 WTO-plus 추구	CPA 가입 진행 중, 기체결 FTA에서 조달 분야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방안 논의</li> <li>· 전자조달을 통한 상호이익 증진 기대</li> <li>· 한국 측은 한·중 FTA에 정부조달 챕터를 포함하되, CPA 틀 내에서 협상이 가속화 될 수 있음을 언급</li> </ul>
지재권	한·미 FTA를 계기로 지재권 수준 대폭 강화	기체결 FTA에서 지리적 표시, 국경조치 및 협력사항 등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지재권 분야 협력증진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와 인력 교환</li> <li>- 다자조약 및 기구상 의무 재확인</li> <li>- 여타 국제협약가입 긍정 고려</li> <li>-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li> </ul> </li> </ul>
경쟁	반경쟁적 행위 제한, 소비자 보호, 공기업 및 지정독점의 비차별의무 등을 규정한 포괄적 내용 포함	서비스챕터에서 서비스공급자에 한하여 경쟁 관련 의무 및 협의, 통보 규정 등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경쟁 관련 아래 사항 고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에서 경쟁정책 중요성 인정</li> <li>- 경쟁법 집행의 상호이해를 위한 정보교환</li> <li>- APEC내의 협력활동 증진</li> </ul> </li> </ul>
SPS	기체결 FTA는 WTO/SPS 권리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간결한 문안으로 구성	기체결 FTA는 WTO/SPS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투명성, 조화, 동등성, 지역화, 소위원회 등 조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SPS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S 관련 상품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표준, 법령체계 등에 대한 정보교환</li> <li>- 교역 중 발생하는 특정 SPS 문제 협의</li> <li>- SPS 분야 기술협력 증진</li> </ul> </li> </ul>

구분	양자, 다자 차원 논의 현화		향후 협력 방향
	한국	중국	
TBT	기체결 FTA는 WTO/TBT 권리·의무 재확인을 하며, 상대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일부 내용 상이	기체결 FTA는 WTO/TBT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국제표준, 투명성, 적합성평가, 기술협력, contact point, 소위원회 등 조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아래 목표 달성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간 정보교환체계 개선 및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영역의 투명성 강화</li> <li>- 국제기준의 폭넓은 적용 권장</li> <li>- 양국 간 교역활성화 위해 불필요한 기술장벽 제거</li> <li>-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분야 협력</li> <li>- 세미나, 상호방문 등을 통한 기술협력 증진 등 양국협력</li> </ul> </li> </ul>
분쟁 해결	기체결 FTA 분쟁해결 절차는 협의, 중재패널, 이행 절차로 상세히 구성	홍콩, ASEAN 등과의 FTA를 제외하고 여타 FTA에는 비교적 상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에서 분쟁해결절차를 별도 챕터로 구성하고 아래 사항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panel 절차 장려</li> <li>- 패널 결정의 효율적 이행 메카니즘 마련</li> <li>- WTO 분쟁해결절차와 포럼 선택이 가능하도록 추진</li> </ul> </li> </ul>

자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제 3절 한중 FTA의 기대효과 및 추진 방향

####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sup>1)</sup>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sup>2)</sup> 향후 한·중 FTA체결 시 칠레와 더불어 세계3대 경제권과 FTA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며 FTA경제영토는 전세계 GDP의 약 70%로 확대될 것임

한중FTA 체결시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가 전망 (한중FTA 공청회('12.2))되며 고용은 발효 후 5년에 19~25만 여명, 10년에 24~33만여명 증가 기대하고 있음

〈표 2-6〉 한중 FTA 시나리오별 효과

년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GDP(%)	후생(억불)	고용(천명)	GDP(%)	후생(억불)	고용(천명)
낮은수준	0.95	176.5	187.5	2.28	275.9	244.4
높은수준	1.25	233.3	247.3	3.04	365.8	325.6

※ 낮은 수준: 농업 10%, 제조업 10% 유보, 높은 수준: 쌀 제외 전면개방

이러한 관세철폐 및 인하 효과에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서비스시장 및 투자개방효과, 그리고 FTA 허브효과 등 감안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되며 이는 수입규제, 통관절차,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투명성, 지역(성)별 규제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對중국 교역확대,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다만, 농수축산업과 일부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의 경우 중국산 제품 수입확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품목은 협상과정에서 민감분야 배려 등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1) 출처: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과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2) GDP(2011년 ,조불) : 미국(15.09), 중국(7.30), 일본(5.87)

교역규모(2011년) : 對중국 (2,206억불), 對미국(1,008억불), 對EU(1,031억불)



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체결시 중국의 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가공무역의 감소추세와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발효에 따른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현상 개선 기대하고 있다.

## 2. 한중 FTA 추진 방향

한중 FTA는 대내외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추세 고려하여 추진하며 세계경제 10위권 진입과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 후 추가 동력을 중국 내수시장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

또한, 미국과 일본 시장 비중 지속축소에 따른 대안카드로 중국시장 활용 차원에서 추진

미래 산업구조 재편(예: 중국의 7대 신흥전략산업)을 고려한 협상과 또한 (초)민감 분야 고려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을 추진

중국이 칠레와 호주 등과의 FTA 체결 시 자국 농업시장을 보호했음(부분적 양허)을 근거로 한국의 농업보호방침 최대한 관철하는 방향으로 FTA 추진

상품뿐 아니라 투자·서비스·지재권·분쟁 등 포괄적 의제를 다뤄야하며 특히 중국 특유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협상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관세 장벽 제거 성공여부가 한-중 FTA의 성패 좌우한다는 의견이 강함

한중 FTA의 사안이 복잡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

# 제 3장 전북의 대중국 무역구조 분석

## 제 1 절 전북의 대중국 교역 현황

### 1. 전북의 대중국 교역현황

전북의 제조업 구조를 보면 업체수에서 음식료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화학제품 순으로 나타난다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의 비중이 높아 2011년 기준 각각 20.46%와 12.28%를 차지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자동차 트레일러와 기타기계 및 장비, 그리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 전북의 주력산업에서 기업이 주로 분포하고 있음

#### 1) 전북의 대중국 교역현황

##### (1) 전북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전라북도의 한중 교역현황을 보면 수출에 있어서는 2006년과 금융위기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의 2.8억불에서 2011년에는 16.9억불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고 수입에 있어서도 동 기간 2.4억불에서 10.4억불로 큰 증가세를 보였음

전라북도는 2002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2001년 0.4억의 흑자규모에서 2011년에는 6.5억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3-1> 전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금액	연평균 증가율	금액	연평균 증가율	
2000	278,325	-	240,317	-	38,008
2001	281,376	1.1	239,441	-0.4	41,935

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연평균 증가율	금액	연평균 증가율	금액
2002	315,183	12.0	348,572	45.6	-33,389
2003	614,735	95.0	449,939	29.1	164,796
2004	803,050	30.6	414,295	-7.9	388,755
2005	817,995	1.9	576,196	39.1	241,799
2006	696,346	-14.9	553,302	-4.0	143,044
2007	718,480	3.2	701,810	26.8	16,670
2008	610,333	-15.1	779,232	11.0	-168,899
2009	792,137	29.8	539,305	-30.8	252,832
2010	1,325,144	67.3	763,046	41.5	562,098
2011	1,688,617	27.4	1,043,313	36.7	645,304

\* 자료: Kita.net

## (2) 전북의 대중국 수출입 품목 현황

전라북도의 대중국 수출품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로 7.58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합성수지가 2.46억, 반도체가 1.33억, 동제품이 1.09억, 자동차부품이 0.78억을 기록하는 등 화학,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이 주요 수출품인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2012년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에서 화학제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반도체 부분도 크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주력산업에 있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은 지속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임

<표 3-2> 전라북도의 대중국 주요수출품 현황

	품목코드	2011(금액)	2011(증가율)
1	정밀화학원료	758,175	38.5
2	합성수지	246,428	20.4
3	반도체	132,665	24
4	동제품	108,766	-13
5	자동차부품	77,564	18
6	건설광산기계	42,436	120
7	농약및의약품	31,015	52.4
8	기타석유화학제품	25,232	-10.7
9	사진영화용재료	20,436	123.7
10	인조섬유장섬유사	18,821	14.3
11	천연섬유사	15,119	32.4
12	기계요소	13,314	58.7
13	종이제품	12,508	34.9
14	기타중전(heavyelectric)기기	12,500	-5

	품목코드	2011(금액)	2011(증가율)
15	선재봉강및철근	11,982	44
16	해조류	10,924	224.3
17	플라스틱제품	10,680	99.6
18	농산가공품	10,562	459.8
19	인조섬유	10,561	-5.7
20	금속공작기계	684	78.1

※ 자료: Kita.net

전라북도의 대중국 수입품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알루미늄으로 1.64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밀화학원료 1.57억, 자동차부품이 1.31억, 반도체가 0.70억, 농약 및 의약품이 0.56억불을 기록하여 비철금속, 정밀화학, 자동차부품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3-3〉 전라북도의 대중국 수입품목 현황

	품목코드	2011(금액)	2011(증가율)
1	알루미늄	163,862	2,428.80
2	정밀화학원료	157,379	59.3
3	자동차부품	131,480	0
4	반도체	69,856	-10.9
5	농약및의약품	55,576	-14.7
6	광학기기	27,693	2,649.90
7	유리제품	27,369	-11.2
8	합성수지	23,572	-28.7
9	산식물	22,199	24.5
10	기타비금속광물	16,511	8.9
11	기타석유화학제품	15,746	-7.3
12	철강판	15,486	11.3
13	전자응용기기	12,834	-8
14	염료및안료	12,351	133.1
15	선재봉강및철근	8,845	177.7
16	섬유및화학기계	8,775	29.2
17	철강관및철강선	8,667	5
18	운반하역기계	2,712	54
19	기타기계류	2,708	123.7
20	금속공작기계	162	95.7

※ 자료: Kita.net

## 2. 전북 주요 수출입 특성

전북 주요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밀화학, 합성수지, 동제품, 건설광산기계, 반도체, 자동차 부품이며 對중 수입 품목은 정밀화학,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산업군임

현재의 시점에서 한·중 FTA체결 시 제조업의 기회 요인이 많겠지만 위기요인에 대한 여파도 장담하기 어려우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손익을 계산하여야 함

중국은 최근 방위·항공우주산업, 철강·비철금속, 화학, 자동차 산업, 통신설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연구개발·마케팅·브랜드 개발, 새로운 기술 플랫폼의 신산업, 신에너지·환경·에너지산업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거대 자본력으로 비교우위 분야의 추월가능성이 있음

대중국 20대 수출품목 중에 가장 유망한 품목은 '무기 화학품'과 '화학공업생산물'으로 보임. 이는 과거의 수입특화에서 대중국 순수출로 전환된 품목임.

또한 '전기기기'와 '부분품, 동과 그제품'은 과거에도 수출특화 품목이었지만, 현재도 지속적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들임. 이 품목들은 향후 전북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고려 될 수 있음.

## 제 4 장 한중 FTA의 민감품목 분석

### 제 1 절 민감품목 선정 방법

#### 1. 민감품목 의미

한·중 FTA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력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다음에서 설명한다.

“민감품목”으로 지칭이 된 품목을 반드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세계시장 및 중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를 점하는 품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민감품목 선정 방법

경쟁력분석을 통한 세계시장 및 중국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의미하는 “민감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sup>3)</sup>은 아래와 같다.

##### (1) 대세계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분류: 제 1단계

민감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단계는 세계시장에서 특정상품이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이는 전라북도의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TSI<sub>i</sub>)를 통해 구할 수 있다.

$$TSI_i = \frac{(X_i - M_i)}{(X_i + M_i)} \quad (1)$$

여기서  $i$ 는 품목이며  $X$ 는 전라북도의 대세계 수출액,  $M$ 은 전라북도의 대세계 수입액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가 1이면 완전 수출특화, -1이면 완전 수입특화, 0이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에 소개된 방법론 활용

면 수출입 규모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경쟁력이 강하고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본다.

〈표 4-1〉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품목군	기준	설명
제1품목군	$TSI_i \geq \overline{TSI}$	수출특화품목
제2품목군	$TSI_i < -0.9$	절대 수입특화 품목군
제3품목군	$-0.5 \leq TSI_i < \overline{TSI}$	경쟁력 취약 품목군
제4품목군	$-0.9 \leq TSI_i < -0.5$	절대 경쟁력 취약 품목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주 :  $\overline{TSI} = (\sum_{i=1}^n TSI_i) / n$

위 표의 제1품목군은 전라북도가 경쟁력을 가지는 품목으로 FTA 협상의 관세유예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품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품목군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절대적으로 수입특화되어있는 품목이다. 제3품목군은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상태로 외국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품목이다. 제4품목군은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민감품목”은 제3품목군과 제4품목군을 합한 것이다.

## (2) 수출증가율에 의한 품목군 조정: 제 2단계

제1단계에서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경쟁력을 측정한 것이며 각 품목별로 동태적인 경쟁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절대적인 수입특화품목군 가운데 현재의 상황보다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 동태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의 증가속도에 따라서 경쟁력이 확충되어 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제품군의 이동의 필요성이 생긴다.

1단계에서 제2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 가운데 해당 품목의 평균수출증가율이 전체 평균수출증가율의 3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당해 품목을 제4품목군인 절대 경쟁력 취약

약 품목군으로 이동 분류한다. 그러므로 그 품목의 평균수출 증가율이 전체평균수출 증가율의 3배 이상이면, 즉  $RGX_i = \frac{X - X_{-q}}{X_{-q} \times q} \geq 3$   $RGX_i = \frac{(X) - (X_{-q})}{X_{-q} \times q}$  를 제4품목군으로 이동한다.

<표 4-2> 수출증가율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1단계	변화기준	제2단계
제1품목군		
제2품목군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우 ( $RGX_i \geq 3 \times RGX$ )	제4품목군
제3품목군		
제4품목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3) 대 중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조정: 제 3단계

제3단계에서는 앞단계의 품목선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중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하여 아래 <표 3-11>과 같이 품목군을 조정한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quad (2)$$

여기서  $j$ 는 FTA 협상대상국, 즉 본 연구에 있어서는 중국을 의미한다. 제3단계에서는 전라북도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 대비해서는 열위에 있는 품목을 대 중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이 품목들의 품목군을 조정한다. 1단계에서 제1품목군에 분류되어 있어도 대 중국 무역특화지수에서 경쟁력이 없을 경우 제3품목군으로 이동한다.

전 단계에서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의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은 제1품목군으로 조정한다.



〈표 4-3〉 대 중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제2단계	변화기준	제3단계
제1품목군	TS <sub>ij</sub> 에 의해 제3품목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3품목군
제2품목군		
제3품목군	TS <sub>ij</sub> 에 의해 제1품목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1품목군
제4품목군	TS <sub>ij</sub> 에 의해 제1품목군으로 구분된 경우	제1품목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4)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제 4단계

제3단계에서는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경쟁력 수준의 측정을 보완하기 위한 단계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 나라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냄으로써 무역특화지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RCA 보다는 특정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MCA(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활용하고자 한다. RCA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MCA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MCA_{ij}^k = \frac{(X_{ij}^k / X_{ij})}{(M_{jw}^k / M_{jw})} \quad (3)$$

단,  $X_{ij}^k$  는 I 국가 k 산업의 j 국가에 대한 수출액,  $X_{ij}$  는 I 국가의 j 국가에 대한 총 수출액을,  $M_{jw}^k$  는 j 국가 k 산업에 대한 대세계 수입액,  $M_{jw}$  는 j 국가의 총수입액을 의미한다.

제4단계에서는 제2,3,4품목 중  $MCA_i$  가 전북 전체 수출의 평균 MCA 지수 보다 2배 이상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제2품목군에 속해 있던 품목은 제4품목군으로 조정하고, 제3,4품목군에 속해 있던 품목은 제1품목군으로 조정한다.

〈표 4-4〉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제3단계	변화기준	제4단계
제1품목군		
제2품목군	$MCA_i \geq 2 \times \overline{MCA}$	제4품목군
제3품목군	$MCA_i \geq 2 \times \overline{MCA}$	제1품목군
제4품목군	$MCA_i \geq 2 \times \overline{MCA}$	제1품목군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5) 품목군의 추가조정: 제5단계

제5단계에서는 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는 품목에 제2품목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들을 제4품목군으로 이동하고, 또한 여타 정책적으로 육성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도 민감품목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 (6) 분석대상 산업 분류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경쟁력 수준의 측정을 보완하기 위한 단계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 나라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냄으로써 무역특화지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RCA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우위 비교보다는 특정 시장에 맞추어진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시장비교우위의 측정인 MCA(Market Comparative Advantage)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 제 2 절 민감품목 선정 결과

### 1. 민감품목 선정 결과

#### 1) 국가수준과 전북의 민감품목 선정결과

민감품목 선정단계를 거친 결과 국가수준에서는 민감품목이 HS2단위 기준으로 24개로 나타났다. 6개가 3품목군, 그리고 18개가 4품목군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의 경우 민감품목이 HS 기준으로 29개이며 이 가운데 8개가 3품목군 21개가 4품목군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에 민감품목이 전국에 비해 5개 품목이 많았고 이에 따라 경쟁력이 아주 부족한 품목이 21개가 된다.

제3품목군은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상태로 외국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품목군이며 제4품목군은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경우에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품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협상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5〉 전국의 민감품목

코드	품목명(단위 : 천불)	전국
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4
5	기타 동물성생산물	4
7	식용의 채소, 뿌리, 과경	4
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3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4
12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3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3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3
22	음료, 알코올, 식초	4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4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
30	의료용품	3
31	비료	4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4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

코드	품목명(단위 : 천불)	전국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4
50	건	3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4
68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4
81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4
91	시계와 그 부분품	4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4
95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
97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4

〈표 4-6〉 전북의 민감품목

코드	품목명(단위 : 천불)	전국
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4
5	기타 동물성생산물	4
7	식용의 채소 ,뿌리 ,과경	4
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3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4
12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품식물 ,짚 .사료식물	3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3
17	당류와 설탕과자	4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3
22	음료 ,알코올 ,식초	4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4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
30	의료용품	3
31	비료	4
42	건축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4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4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3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제외 )	3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4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4
68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4
79	아연과 그 제품	3
81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4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4
91	시계와 그 부분품	4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4
95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
97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4

## 2) 국가수준과 전북의 민감품목 비교

국가수준과 전북의 민감품목 가운데 양 품목간의 차이를 보이는 품목을 보면 전북은 전국에 비해 야채류, 육류를 비롯한 농산물품에서 민감품목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보호를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유에서는 품목별로 민감품목이 전국과 전북에서 엇갈리게 나타났다. 견(50)과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60)은 전북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 국가수준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류와 그 부속품(62)에서는 전국은 경쟁력이 있으나 전북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류 등(64)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전북은 또한 비철금속 가운데 아연과 그제품(79)과 철도용 기관차량 등(86)에서 전국대비 경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가운데 국가수준과 전북이 차이가 나는 경우 모든 품목이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에 따른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표 4-7〉 전국과 전북의 차별화된 민감품목

코드	품목명(단위 : 천불)	전북	전국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3	1
17	당류와 설탕과자	4	1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3	1
50	견	1	3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1	3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제외 )	3	1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4	1
79	아연과 그 제품	3	1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4	1

## 제 3 절 한중 FTA로 인한 전북 산업의 영향력 분석

### 1. 정량분석

#### 1) 분석방법

SMART 모형은 단일 국가나 지역에서의 관세변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부분균형 모형인데, 부분균형 분석은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산업이나 품목 등에 미치는 효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양이 적고 매우 세분된 산업을 대상으로 가능하며 분석과정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sup>4)</sup> 하지만 과거 시계열 자료(교역량 등)에 의존하여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므로 파라미터(수입탄력성 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 2) SMART 모형체계

SMART모형은 재화에 대한 균형수요량을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상대가격의 함수로 나타낸 수요방정식을 의미한다. 무역정책에 의해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감축되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국내재와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재간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가격탄력성에 따라 국내재 소비를 줄이고 수입재 소비를 늘리게 된다. 이것이 해당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이다. 이러한 무역창출효과의 크기는 현재의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량과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한편, 여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재에 비해서도 해당 국가의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하던 품목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무역전환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무역전환 효과는 수입재간 대체탄력성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SMART모형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수입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

---

4) 분석과정이 명확하다는 의미는 정확하다는 의미보다는 분석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의미이며, 일반균형분석의 경우 복잡한 행태방정식의 상호작용을 거쳐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한 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분석결과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한계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MART 모형에서는 아래 <식 1>과 같이 준선형 효용함수 (quasi-linear utility function)를 사용하며, 수입재화 소비에 따른 효용과 기준재화 (numeraire good)를 더하여 총 효용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sup>5)</sup>

$$U = \sum_j u_j(m_j) + n \quad \text{<식 1>}$$

위 식에서 n은 기준재화를  $m_j$ 는 수입재 j를 지칭한다. 선형효용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준재와 수입재 사이에 대체관계는 없다.

예산제약하에서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면, 수입재와 기준재화에 대한 균형소비량이 <식 2>와 <식 3>와 같이 결정된다.

$$m_{j,i} = f(p_{j,i}^d; p_{j,\neq i}^d), \forall_{j,i} \quad \text{<식 2>}$$

$$n = y - \sum_i \sum_j (p_{j,i}^d \times m_{j,i}) \quad \text{<식 3>}$$

여기에서  $p_{j,i}^d$ 와  $p_{j,\neq i}^d$ 은 각각 수입재 j의 i국과 i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국내가격을 나타낸다.

국내가격과 세계가격 (world price)의 차이는 관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가격 사이에는 <식 4>의 관계가 성립한다.

$$p_{j,i}^d = p_{j,i}^w (1 + t_{j,i}) \quad \text{<식 4>}$$

본 분석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관세하락의 효과이기 때문에 관세감축률( $\theta_{j,i}$ )

---

5) 균형에서는 상대가격의 변화만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소득효과 등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재화의 개념을 사용한다.

의 개념을 이용하여 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를 <식 5>와 같이 표현한 뒤, 감축률( $\theta_{j,i}$ )을 조정함으로써 특혜관세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t_{j,i} = t_j^{MFN}(1 - \theta_{j,i}) \quad \text{<식 5>}$$

감축률 ( $\theta_{j,i}$ )에 따라 교역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탄력성이 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수입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정의에 의해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arepsilon_{j,i} = \frac{dm_{j,i}}{m_{j,i}} \bigg/ \frac{dp_{j,i}^d}{p_{j,i}^d} < 0 \quad \text{<식 6>}$$

관세를 삭감하게 되면, 두 가지 무역효과가 발생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로 기존의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던 품목을 관세가 삭감되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되는 효과이다.

무역창출효과는 탄력성의 정의로부터 <식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C_{j,i} = p_{j,i}^w dm_{j,i} = p_{j,i}^w \varepsilon_{j,i} m_{j,i} \frac{dp_{j,i}^d}{p_{j,i}^d} \quad \text{<식 7>}$$

앞에서 살펴보았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관계, 관세율을 이용하여 식을 다시 정리하면, <식 8>와 같이 무역창출효과는 가격탄력성, 수입량, 관세율로 표현이 가능하다.

$$TC_{j,i} = p_{j,i}^w dm_{j,i} = p_{j,i}^w \varepsilon_{j,i} m_{j,i} \frac{dt_{j,i}}{(1+t_{j,i})} = \varepsilon_{j,i} m_{j,i} \frac{dt_{j,i}}{(1+t_{j,i})} \quad \text{<식 8>}$$



특정지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하락할 경우 해당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상대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던 품목을 해당지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현상이 무역전환효과이기 때문에 무역전환효과 추정에서는 수입재간 대체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체탄력성은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sigma_{j,i,\neq i} = \frac{d\left[\frac{m_{j,i}}{m_{j,\neq i}}\right]}{\frac{m_{j,i}}{m_{j,\neq i}}} \bigg/ \frac{d\left[\frac{p_{j,i}^d}{p_{j,\neq i}^d}\right]}{\frac{p_{j,i}^d}{p_{j,\neq i}^d}} < 0 \quad \text{<식 9>}$$

무역전환효과는 <식 9>로부터 <식 10>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TD_{j,i} = dm_{j,i} = \left(\frac{m_{j,\neq i}m_{j,i}}{m_{j,\neq i} + m_{j,i}}\right) \left(\frac{dt_{j,i}}{1+t_{j,i}}\right) \sigma_{j,i,\neq i} \quad \text{<식 10>}$$

<식 10>의 각 구성요소는 대체탄력성의 정의식인 <식 9>에서 <식 11>과 <식 12>를 계산함으로써 도출된다.

$$\frac{d\left(\frac{p_{j,i}^d}{p_{j,\neq i}^d}\right)}{\frac{p_{j,i}^d}{p_{j,\neq i}^d}} = \frac{\frac{p_{j,i}^w dt_{j,i}}{p_{j,\neq i}^w(1+t_{j,\neq i})}}{\frac{p_{j,i}^w(1+t_{j,i})}{p_{j,\neq i}^w(1+t_{j,\neq i})}} = \frac{p_{j,i}^w dt_{j,i}}{p_{j,i}^w(1+t_{j,i})} = \frac{dt_{j,i}}{(1+t_{j,i})} \quad \text{<식 11>}$$

$$d\left(\frac{m_{j,i}}{m_{j,\neq i}}\right) = \frac{dm_{j,i}}{m_{j,\neq i}} - \frac{m_{j,i}dm_{j,\neq i}}{(m_{j,\neq i})^2} = \frac{dm_{j,i}(m_{j,i} + m_{j,\neq i})}{(m_{j,\neq i})^2} \quad \text{<식 12>}$$

SMART 모형에서는 각 국의 품목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본 분석에서는 SMART 모형을 활용하였다.

### 3) 분석자료

교역자료는 UN COMTRADE에서 구한 한국의 HS 6단위 품목별 2010년 수입자료를 이용하였다. 전북지역 수출입통계는 무역협회(www.kita.net)의 지역별 통계를 활용하였다. 수입가격 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은 WITS모형을 활용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관세율 자료는 관세청의 관세자료를 사용하였다.

###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각 품목별 무역창출효과는 아래와 같다. 무역창출효과 계산시 2007-2011년 평균 수출입액을 산정하였고 수입수요 탄력성은 HS2단위 산술평균을 낸 것이며 관세율 또한 HS2단위로 산술평균을 낸 것이다.

한중 FTA로 인하여 무역창출효과가 큰 부분은 광물류(HS27), 철강(HS72), 비금속(HS83), 원자료보일러 및 기계류(HS84), 전기기기(85), 선박과 구조물(HS89) 등 제조업이 크게 나타났으며 농산물에서는 어류, 갑각류(HS03), 식용의 채소(HS07), 곡물(HS10)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8> 한중 FTA로 인한 무역창출효과 비교

HS 코드	품목명	중국 무역창출	전북 무역창출	비교
01	산동물	46	0	-46
02	육, 식용설육	1	36	34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2,940	3,339	-9,601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17	34	17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110	58	-52
0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185	619	434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4,213	88	-4,124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482	113	-370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316	14	-302

HS 코드	품목명	중국 무역창출	전북 무역창출	비교
10	곡물	4,616	0	-4,616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940	70	-870
12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2,205	222	-1,983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28	5	-23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4	0	-4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05	102	-3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111	170	-941
17	당류와 설탕과자	536	2,692	2,156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12	7	-5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411	922	511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480	110	-370
21	각종 조제식료품	138	131	-7
22	음료, 알코올, 식초	358	528	170
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1,460	55	-1,405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540	234	-306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1,980	903	-1,077
26	광, 슬랙, 회	537	379	-159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6,183	117,297	91,114
28	무기화합물,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3,469	3,598	129
29	유기화합물	2,458	16,965	14,507
30	의약품	187	91	-96
31	비료	5,453	11	-5,441
32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294	376	82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34	363	329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58	189	132
35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굴루우, 효소	147	192	45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8	2	-6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86	124	38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995	1,753	758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512	8,360	6,848
40	고무와 그 제품	439	1,254	815
41	원피 (모피제외) 와 가죽	324	1,664	1,340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652	60	-592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163	14	-150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855	24	-1,832
45	코르크와 그 제품	0	0	-0
46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52	2	-50

HS 코드	품목명	중국 무역창출	전북 무역창출	비교
47	목재펠트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	-	-	-
48	지와 판지 ,제지용펠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1,448	695	-753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32	23	-9
50	견	127	14	-113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1,729	163	-1,566
52	면	2,877	827	-2,050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88	13	-75
54	인조장섬유	959	1,245	286
55	인조단섬유	1,836	582	-1,254
56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654	389	-265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104	127	23
58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44	103	58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 ,공업용의방직용 섬유제품	504	773	269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219	1,264	1,045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5,617	836	-4,781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제외 )	3,479	1,986	-1,493
63	기타 방직용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섬유제품 ,넝마	1,245	335	-910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1,606	2,468	862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42	12	-30
66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체찍 및 이들의 부분품	95	4	-91
67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53	8	-45
68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2,375	287	-2,088
69	도자제품	3,182	192	-2,990
70	유리와 유리제품	794	192	-601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219	365	146
72	철강	48,718	7,426	-41,292
73	철강의 제품	13,014	4,307	-8,707
74	동과 그 제품	954	4,238	3,284
75	니켈과 그 제품	68	25	-42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885	2,201	-1,684
78	연과 그 제품	21	11	-10
79	아연과 그 제품	78	125	47
80	주석과 그 제품	29	167	138
81	기타 비금속 ,서멧트 ,이들의 제품	524	113	-411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279	761	483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1,144	398	-746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6,714	22,451	5,737

HS 코드	품목명	중국 무역창출	전북 무역창출	비교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4,107	44,134	20,027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197	197	0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190	27,044	18,854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3	21	18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14,266	3,161	-11,105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 료용기기 및 이들의부분품과 부속품	2,738	31,168	28,430
91	시계와 그 부분품	192	9	-183
92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6	112	46
93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1	-4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895	1,054	160
95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51	66	-485
96	잡품	153	138	-15
97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	5	5

한중 FTA로 인하여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의 무역창출효과를 보면 의류와 부속품(HS62), 신발류(HS64)등 경공업 제품이 크며 육류, 어류 등 조제품(16)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HS79, HS86등 재료 및 중공업 제품은 무역창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 전곡과 전복의 차별화된 민감품목의 무역창출효과

코드	품목명(단위 : 천불)	전북 민감품목	무역창출 효과(천불)
16	육류 ,어류 ,감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3	-941
17	당류와 설탕과자	4	2,156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3	-370
50	견	1	-113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1	1,045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제외 )	3	-1,493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4	862
79	아연과 그 제품	3	47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4	0

## 2. 정성분석

### 1) 전북 주요 산업의 영향력에 대한 설문

한중 FTA로 인한 전북의 주요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 설문은 2012. 10월 10-10월 17일로 226개 기업 응답

설문은 자동차부품 28개, 음식료품 37개, 기계 금속 24개 업체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수출기업이 아닌 경우도 51개가 포함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수출위주 기업이 21%, 수출 및 내수위주 기업이 8.9%, 내수위주 기업이 60.3%, 수입위주 기업이 4.5%로 내수위주 기업의 비중이 높은편임

〈표 4-10〉 생산품목 유형별 기업 수

생산품목유형	빈도	퍼센트
음식료품	37	16.5
섬유의류	7	3.1
목재·제지	7	3.1
기계·금속	24	10.7
전기·전자	10	4.5
석유화학	6	2.7
정밀화학	4	1.8
자동차부품	28	12.5
기타(철강, 금속, 선박 등)	50	22.3
수출하지 않음	51	22.8
합계	224	100

#### (1) 설문조사 결과

한중 FTA 체결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영향이 없다는 49.3%, 긍정적 33.8%, 부정적 16.9% 순으로 영향이 없다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율이 낮거나 경쟁구도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품은 긍정적(48.6%), 또는 영향없음(40.5%) 비중이 높아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섬유의류는 영향 없음의 비중이 높았고(85.7%) 기계금속의 경우에도 긍정적(41.7%), 또는 영향없음(50.0%)으로 부정적 평가는 적었음. 자동차부품은 긍정적과 부정적 입장이 각각 39.3%, 25.0%로 혼재되어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나 부정적 효과도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4-11〉 한중 FTA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항목	빈도	퍼센트
긍정적	76	33.8
영향없음	111	49.3
부정적	38	16.9
합계	225	100

한중 FTA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이유는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가 66.7%의 압도적인 답을 하였으며 한국 수입관세 철폐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인하 효과가 17.6%로 나타남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관세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관세에 대한 부담 제거가 FTA의 가장 큰 효과로 보고 있다.

특히, 음식료품(66.7%)과 자동차부품(72.7%), 전기전자(100%), 기계금속(70%)에서 관세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으로 응답함

〈표 4-12〉 한중 FTA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항목	빈도	퍼센트
중국 관세 철폐 등으로 인한 수출증가	52	66.7
한국 수입관세 철폐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인하 효과	14	17.9
중국기업의 투자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4	5.1
한-중간 통상마찰 완화	2	2.6
기타	6	7.7
합계	78	100

한-중 FTA체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는 제품 특성상 중국 수입품 대체 가능성이 낮음과 국내제품 인지도가 중국제품 인지도 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각 15.3% 답하였고 가격 또는 제품 품질에서 중국 수입품에 비해 우세하기 때문이 13.5%로 나타남

그러므로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중국산이 가격 및 인지도에서 한국산과 경쟁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가격품질의 우세가 주요 원인이고(40%) 섬유 의류는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33%)과 품목의 관세 영향이 미미한 것(33%)을 원인으로 꼽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제품인지도의 우월(50%)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함

<표 4-13> 한중 FTA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이유

생산품목유형	빈도	퍼센트
제품 특성상 중국 수입품 대체 가능성 낮음	17	15.3
가격 또는 제품 품질에서 중국 수입품에 비해 우세	15	13.5
국내제품 인지도가 중국제품 인지도보다 우월	17	15.3
해당 품목 관세 영향 미미	7	6.3
기타	55	49.5
합계	111	99.9

한-중 FTA 체결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매출 감소가 65.8%로 가장 많았고 중국기업 한국진출 및 유턴기업으로 인한 매출감소도 10.5%로 답을 하여 대체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와 유턴기업 및 중국기업의 한국진출로 인한 피해도 있을 것으로 내다 봄

특히, 음식료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100%, 67.6%, 100%)각각 으로 예상이 되어 부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 한중 FTA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이유

생산품목유형	빈도	퍼센트
중국산 제품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제품 매출 감소	25	65.8
중국기업 한국 진출 및 유턴 기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4	10.5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에 비해 경쟁력 열등	0	0.0
기타	9	23.7
합계	38	100



한-중 FTA가 체결될 시 경영의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 매출액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이 50%에 달하였고 소폭증가가 16.4%, 대폭증가가 8.4%인 반면 감소한다는 응답이 8%에 달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았음.

고용이나 수출, 수입에서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소폭증가, 대폭증가, 소폭감소, 대폭감소의 순으로 나타남

한중 FTA에 대해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응답을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

일반적으로 매출에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하였으나 식품표품은 35%가 증가할 것으로 답하였고 기계금속 또한 37.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고용측면에서는 음식료품, 기계금속, 자동차부품이 증가우세로 답을 하였으며 수출에서도 음식료품, 기계금속이 수출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답하였음

<표 4-15> 한중 FTA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생산물목유형	매출		고용		수출		수입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대폭증가(+20%이상)	19	8.4	19	8.4	18	8.0	19	8.4
소폭증가(+10~20%)	37	16.4	39	17.3	37	16.4	30	13.3
영향미미	112	49.8	118	52.4	117	52.0	126	56.0
소폭감소(-10~20%)	11	4.9	6	2.7	3	1.3	2	0.9
대폭감소(-20%이상)	7	3.1	7	3.1	5	2.2	3	1.3
잘모름	39	17.3	36	16.0	45	20.0	45	20.0
합계	225	99.9	225	99.9	225	99.9	225	99.9

각 기업의 주력 제품 가운데 중국(한국투자기업 포함)에서 생산되지만, 아직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는 제품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50.7%가 아직 수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6〉 주력제품의 수입 여부

생산품목유형	빈도	퍼센트
예, 아직 수입되지 않습니다.	114	50.7
아니오, 이미 수입되어 판매됩니다.	111	49.3
합계	225	100

수입 가능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답이 41.4%, 낮은 편이다가 19.8%로 60% 정도가 수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음식료품과 기계금속, 그리고 기타(철강, 금속, 선박등)에서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큼

〈표 4-17〉 주력제품 중 수입되지 않는 제품의 수입 가능성 여부

생산품목유형	빈도	퍼센트
매우 높다	2	1.8
높은 편이다	18	16.2
보통	23	20.7
낮은 편이다	22	19.8
매우 낮다	46	41.4
합계	111	99.9

이러한 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이 낮다고 응답한 답이 22.8%, 14.0%로 나타나 경쟁력이 있어 수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격경쟁력에서 높다고 답한 분야는 음식료품,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타로 나타났고 낮은 부분은 자동차부품과 음식료품 분야인 것으로 응답함.

제품경쟁력에서는 음식료품,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타 등이 높은 것으로 답하였으며 음식료품과 자동차부품 일부가 제품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답함

〈표 4-18〉 수입되지 않는 제품의 가격 및 제품 경쟁력

생산품목유형	가격		제품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높다	9	7.9	11	9.6
높은 편이다	53	46.5	62	54.4
보통	26	22.8	25	21.9
낮은 편이다	12	10.5	4	3.5
매우 낮다	14	12.3	12	10.5
합계	114	100	114	99.9

관세철폐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즉시철폐가 가장 많은 47.2% 였고 3년뒤 철폐가 18.9%로 관세를 초기에 철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제품의 경쟁력을 설문한 결과와 일치하며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51.1%, 제품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87.3%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음식료품자동차부품의 조기철폐 요구가 높았으며 기타 부문에서의 철폐유보 비중이 높았음

〈표 4-19〉 주력 제품의 관세철폐시기

생산품목유형	빈도	퍼센트
즉시 철폐	25	47.2
3년뒤 철폐	10	18.9
5년뒤 철폐	13	24.5
10년뒤 철폐	1	1.9
철폐 유보	4	7.5
합계	53	100

주력제품의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이 높다고 답한 경우는 51.1%로 나타났고 낮은 편이라고 평가한 경우도 26.4%임. 제품경쟁력은 높다고 답한 비중이 87.3%로 제품경쟁력에서는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답함

가격경쟁력을 보면 음식료품의 경우 높은 편으로 답한 비중이 큰 반면 (47.1%)하였으나 낮은 편으로 답한 비중도 높았으며(26.4%) 섬유부분 또한 높은 편이다와 낮은 편이다가 대등하게 나타났고 기계금속과 전기전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자동

차부품은 높은 편으로 나타남

제품경쟁력을 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높다의 비중이 큰 분야는 음식료, 목재제지, 자동차부품으로 나타남

〈표 4-20〉 주력제품의 가격 및 제품 경쟁력

생산품목유형	가격		제품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높다	26	19.5	76	56.7
높은 편이다	42	31.6	41	30.6
보통	30	22.6	13	9.7
낮은 편이다	28	21.1	3	2.2
매우 낮다	7	5.3	1	0.7
합계	133	100.1	134	99.9

한-중 FTA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분야를 설문한 결과 관세 인하 및 철폐가 가장 높은 35.4%의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통관절차의 간소화, 원산지 기준 순으로 나타나 관세의 철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그리고 원산지 기준의 강화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관세에 민감한 분야는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 의류, 음식료품, 자동차부품 등이며 통관절차를 중점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분야는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원산지기준에 대해서는 음식료품, 기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함

〈표 4-21〉 중점협상 부문

생산품목유형	빈도	퍼센트
관세인하 및 철폐	84	35.4
기술도입관련 규제	13	5.5
통관절차 간소화	47	19.8
정부조달시장	4	1.7
원산지 기준	28	11.8
지적재산권	11	4.6
무역피해 구제	11	4.6
비관세장벽	0	0.0
기타	39	16.5
합계	237	99.9

한-중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방안에 대한 설문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의 선제적 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무역조정제도의 지원 강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장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조사 지원 순으로 나타나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료품의 경우 시장 및 기업에 정보조사지원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자동차부품과 기계금속의 경우 무역조정제도의 지원강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지원이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석유화학은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중요함

〈표 4-2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방안

생산물품유형	빈도	퍼센트
무역조정제도의 지원 강화(적용 요건 완화)	48	21.2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45	19.9
시장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조사 지원	36	15.9
구조조정에 대한 자금의 선제적 지원	52	23.0
기타	45	19.9
합계	226	99.9

한-중 FTA활용관련, 가장 관심 있는 지원사업을 설문한 결과 FTA활용 해외시장개척이 23.6%로 가장 많았고 FTA관련 교육, 설명회, 전문가 현장 파견 컨설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료품과 자동차부품, 기타의 경우 FTA활용 해외시장 개척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컨설팅과 교육이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응답하였으며 섬유 의류, 목재제지, 전기전자의 경우 컨설팅과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 관심있는 FTA 지원사업

생산물목유형	빈도	퍼센트
전문가 현장파견 1:1 컨설팅	49	21.8
FTA관련 교육·설명회	50	22.2
FTA 전문가 온라인 상담	13	5.8
FTA 종합포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28	12.4
FTA 활용 해외시장개척	53	23.6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	17	7.6
FTA 활용 매뉴얼 제작 배포	10	4.4
기타	5	2.2
합계	225	100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 <sup>6)</sup>	KOTRA
<input type="checkbox"/> 중국기업 178개사 대상설문조사 (제조업 125, 서비스업 53)	
<input type="checkbox"/> 업종별 구성은 제조업기업 70.2%(125개사), 서비스업기업29.8%(53개사)임	
○제조업 기업의 세부업종은 식품가공 7.2%, 섬유 의류 14.4%, 가죽4.0%, 석유 화학 12.8%, 금속및비금속15.2%, 기계15.2%, 전자통신설비10.4%, 운수설비3.2%, 기타 17.6% 임	
○서비스업기업은 부동산17.0%, 금융18.9%, 유통9.4%, 숙박음식업18.9%, 운수창고업22.6%, 정보통신업9.4%, 기타3.8%	
<input type="checkbox"/> 중국기업들은 한중FTA 추진에 대해 ‘매우지지’ 20.2%(36개사), ‘지지’ 73.6%(131개사)로 응답해 93.8%(167개사)의 절대적인 찬성률을 보이고 있음	
○6.2%가‘보통’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반대’ 또는 ‘매우반대’ 입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input type="checkbox"/> 업종별 한중 FTA 지지율은 제조업에서 섬유 의류, 가죽류, 석유화학, 전자통신설비, 운수설비등이 전원 찬성 입장이며 금속및비금속과 식품가공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과금융, 숙박음식업등이 전원찬성 입장이나 정보통신	

업과 운수창고업, 유통업기업들의 지지율은 각각 60%와 75%, 80%에 그침

○이는 이 분야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한 시장개방 확대에 덜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됨

2. 한중 FTA 지지 이유 : 기업간 협력 확대, 韓 수입관세 인하 順

□ 복수 응답으로 질문한 한중 FTA 지지 이유에 대해 '한중 기업협력이 확대 될 것이기 때문' 이라는 응답수가 1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의 수입관세 인하'(104), '한국산제품 수입가격 인하'(94), '한국의 비관세장벽감소'(73)의 순으로 조사됨

○'대 한국 투자가 증가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수도 64에 달함

○제조업 기업의 한중 FTA 지지 이유는 '한중 기업협력 확대'(85), '한국의 수입관세 인하'(81), '한국산 제품 수입가격 인하'(71), '한국의 비관세장벽 감소'(60), '대 한국 투자증가'(42)로 나타남

□ 한중 FTA 협상개시 희망 시기는 '즉시'가 56.7%(101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 과 '3년 이후'는 각각12.4%(22개사)와 1.1%(2개사)에 그침

○'즉시개시'의 응답비율은 서비스업(50.9%)보다 제조업(59.2%)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별 한중 FTA 협상개시 희망 시기는 제조업에서 기계류, 금속및비금속, 식품가공, 석유화학, 운수설비업체에서 '즉시' 응답비율이 50%를 넘어섬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 유통,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의순으로'즉시' 응답이 높음

□ FTA 체결이 자사 영업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조업기업들은 ' 좋음'과 '매우 좋음' 응답 비율이 각각52.0%(65개사)와 8.0%(10개사)로 높았지만 '변화 없음' 응답도36.8%(46개사)

○서비스업은 '변화 없음' 응답률이58.5%(31개사)로 단연 높음

□ 세부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 전자통신설비, 석유화학기업에서 한중FTA가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음

○부동산, 운수창고업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88.9%와 83.3%로 나타나 이들 업종은 FTA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임

## 2) 한중 FTA에 대한 전북기업과 중국기업의 시각차

### (1) 한중 FTA에 대한 일반 견해

중국기업들은 한중FTA 추진에 대해 '매우지지' 20.2%(36개사), '지지' 73.6%(131개사)로 응답해 93.8%(167개사)의 절대적인 찬성률을 보이고 있음

반면 전북 기업의 경우 한중 FTA 체결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영향이 없다는 49.3%, 긍정적 33.8%, 부정적 16.9% 순으로 영향이 없다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한중 FTA에 대해 미온적인 답을 보이고 있음

### (2) 한중 FTA에 대한 추진 시기

한중 FTA 협상개시 희망 시기는 '즉시'가 56.7%(101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3년' 과 '3년 이후'는 각각12.4%(22개사)와 1.1%(2개사)에 그침

전북기업의 관세철폐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즉시철폐가 가장 많은 47.2% 였고 3년 뒤 철폐가 18.9%로 관세를 초기에 철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양 지역이 FTA를 추진할 경우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선호

### (3) 한중 FTA 지지 이유

중국기업은 한중 FTA 지지 이유에 대해 '한중 기업협력이 확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수가 1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의 수입관세 인하'(104), '한국산제품 수입가격 인하'(94), '한국의 비관세장벽감소'(73)의 순으로 조사됨

반면, 전북의 기업은 한중 FTA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가 66.7%의 압도적인 답을 하였으며 한국 수입관세 철폐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인하 효과가 17.6%로 나타남

한중 FTA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중국기업의 경우는 기업간 협력이 중요한 반면 전북의 기업은 관세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으로 나타나 전북과 중국기업들의

---

6) '중국 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설문조사는 KOTRA 상하이무역관이 중국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시노트러스트(新華信國際信息諮詢有限公司)에 의뢰, 2007년 4월18일부터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6일간 실시함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4) 한중 FTA에 대한 기업의 영향

중국 기업은 한중 FTA 체결이 자사 영업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조업기업들은 '좋음'과 '매우 좋음' 응답 비율이 각각 52.0%(65개사)와 8.0%(10개사)로 높았지만 '변화 없음' 응답도 36.8%(46개사)

반면, 전북의 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이 50%에 달하였고 소폭증가가 16.4%, 대폭증가가 8.4%인 반면 감소한다는 응답이 8%에 달하여 대체적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았음.

중국의 경우에 영업에 더 긍정적으로 보고 전북의 경우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중국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한중 FTA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전북 주요 산업의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

#### □ 자동차산업<sup>7)</sup>

##### (1) 한중FTA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영향력

자동차에서도 중국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물량공세가 심해지고 있으나, 품질 문제가 매우 불안정적 이어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TATA에서도 중국 부품에 대해 자동차 기술원에 별도의 테스트를 맡기고 있으며, 납기 신용문제도 문제가 되어 중국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움. 중국의 품질이 불안정한 이유는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품질관리가 안되는 원인은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과 중국인의 정서문제 등으로 들 수 있음. 그러나, 품질은 외국 기업의 합자회사로 인해 향상되고 있으며 그 회사는 합자회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음. 기능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으며, 품질 문제만 안정화된다면 중국제품의 세계 시장의 점유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됨.

전반적으로 자동차산업의 단기적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품질 문제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제품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한중 FTA에 따른

---

7) 전북자동차기술원(JIAT)의 자문 정리

자동차 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현대는 강소성에 공장을 두고 있고, TATA의 경우에도 중국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FTA가 되면 '강보합'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중국에 우리 공장이 들어서면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FTA 체결로 지역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국가는 '4' 영향이 될 것임.

## (2) 전북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30%정도 뒤쳐져 있으나, 품질 경쟁력은 중국에 비해 30% 정도 앞서 있음. 메이커 경쟁력은 우리 자체의 브랜드가 경쟁력이 적음.

## (3) 민감품목

알루미늄 휠은 관세를 유예해야 할 품목이라 생각됨. 이 분야는 품질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음. 그로 인해 중국 제품이 무차별 수입되고 있음. 변속기 분야는 우리 쪽이 거의 없음.

## (4) 기타 고려사항

GM과 연관기업 등의 영향은 품질 문제가 전체가 되지 않으면, 영향이 거의 없음. 품질에서 일단 만족을 할 경우, GM은 언제든지 중국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됨.

### □ 섬유산업<sup>8)</sup>

#### (1) 섬유산업의 현황

전라북도의 섬유업체는 2010년 기준 184개 업체가 있으며, 60%는 봉제업이며, 영세한 수준이며, 일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대부분 적자를 보며 운영하고 있는데, 이유는 적자가 나지만, 다른 산업으로 전환이 어려워 계속하고 있음. 중국, 동남아로 생산시설을 옮기며, 국내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일감이 많이 줄어들음.

---

8) 니트산업연구원의 자문 정리

가공, 편직 부문은 기능성소재, 고부가가치 등 자체 대책을 찾고 있음.

## (2) 섬유산업의 관세 철폐시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

미국, EU는 많게는 30%의 관세가 있으며, 관세 철폐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중국은 8%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영향력은 클 것으로 보임. 문제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은 섬유 선진국에 밀리고, 중저가제품은 동남아 제품과 경쟁을 해야함. 고부가가치로 가거나, 가격경쟁을 해야 하지만, 이도 쉽지는 않음. 한중 FTA로 인해 현재의 상황으로는 대부분 업체가 폐업될 수도 있음.

## (3) 경쟁력 분석

가격 및 제품 경쟁력을 보면 Stream 별로 다르긴 하지만, 봉제 부문은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고, 의류, 섬유사 부문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내의류는 일반적으로 전북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일반 제품은 중국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임. 기능성, 친환경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음

한중 FTA와 관련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섬유는 대 중국 25%를 수출하고 있고, 7.0%를 수입하고 있고, 섬유류는 2010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났음.

내의, 이동복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능성 소재, 고부가가치 소재로 가야 함.(닥섬유 등)

## □ 식품가공산업<sup>9)</sup>

### (1) 식품가공산업의 영향 정도

식품 수출은 많지는 않은 상황임. 가공 분야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문제점은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가공 분야에서는 관세 철폐로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농산물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전북에서는 지역농산물 가공 분야가 취약해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2) 지연산업 중 장류산업의 영향

---

9) 생물산업진흥원의 자문 정리

소규모 기업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임. 가공품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으나, 영세 기업은 도태될 것임.

포커스를 경쟁력 있는 대기업 쪽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아니면 영세기업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고 접근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제품 및 품질 차별화라고 생각됨.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리딩 기업은 중장기 R&D를 소규모 기업은 맞춤형 현장지원 두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 (3) 긍정적 효과 부문

중국 시장이 거대 소비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FTA가 되므로, 고부가가치에는 경쟁력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품질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함. 식품 관세율은 평균 30%정도이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고 한류에 대한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음.

### (4) 수요층에 대한 세분화

미국에서는 한인이 중심이 되는 소비층이 형성되어있는데, 중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은 한국의 대형 마트가 몇 개 진출이 되어있어 이들 위주로 수출이 되며 건강식품과 홍삼 등이 주력 수출품목임.

홍삼의 경우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어 관세율이 높으며 전복권은 장류, 홍삼, 복분자, 육가공 정도임. 이와 더불어 조미감, 제과, 인삼, 유자차 등은 부안과 전주 휘미리 식품에서 주도하고 있음.

### (5) 식품산업의 경쟁력

가격은 한국식품이 180~200%에 거래되고 있으며, 품질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130%정도임.

## (6) 관세유예 품목

관세 철폐가 유예되어야 하는 품목은 가공 쪽에는 크게 없으나 절임류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은 보호가 필요함. 중국에서도 절임류에 대해서는 주 재료를 현지에서 재배가 가능한 측면이 있고, 절임류 가공은 대부분 관세에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이 투입됨. 이와 더불어 생선류, 어패류의 가공도 취약할 수 있음.

관세 철폐가 식품 산업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 기반 업체는 어려울 것 같고, 제과에는 큰 영향은 없어 보임. 품목의 특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음. 초민감, 민감 품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해야 함

## 제 5 장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및 활용방안

### 제 1 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하나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다른 하나는 FTA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방안임

전자는 민감품목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또는 자구노력이 있을 수 있으며 후자는 소극적 방안으로 FTA의 체결시기 유예, 피해시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들을 수 있음

##### 1) 산업별 경쟁력 확보

FTA는 양국의 소득을 국내 뿐 아니라 국가 간에 재분배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효율성 및 경쟁력 기반으로 산업이 재편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쟁력을 확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1) 자동차 부문 및 대응방안

한국과 중국은 세계의 제 4, 5대 생산국으로 한국은 생산의 대부분을 수출을 하고 중국은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HSK 2단위의 분석을 보면 자동차관련 부품 분야에서 전라북도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중국의 수입관세가 제거되면 중국에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중국에서의 중국뿐 아니라 타 국가와의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관세가 0이 되면 중국의 직접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승용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을 높이고 부품을 수출 하는 형태로 바뀌어 질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의 임금과 현재 생산시설이 소비시장으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적재산권과 관세를 낮춤으로 해서 중국의 직접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전라북도는 상용차와 부품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직접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2000년 초에 비용에 민감한 기업들이 이전을 한 이후 그 추세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음

FTA로 인한 완성차 분야의 영향력은 적을 것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므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결국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FTA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이나 수출의 증가보다는 수입의 증가가 클 것이므로 부품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임

전북의 자동차 R&D는 전북자동차기술원(JIAT)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FTA와 미래산업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자동차의 생산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음

전북도에서 현대자동차, GM대우, 타타대우 등을 연계한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예타를 통과 하였고 이로 인해 상용차부품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 할 것임(1736억 규모). 또한 이와 더불어 그린카 산업 주도를 위한 핵심 R&D 사업(현재 7개사업 867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특장차집적화 단지를 추진하고자 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R&D 및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식경제부에서 FTA 대응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 컨설팅 지원이 거의 되어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도에서는 TP가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편으로 TP의 마케팅 관련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이 부문에서 경제통상진흥원과 TP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2) 섬유 산업의 경쟁력 및 대응방안

한국과 전북의 경우에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이 되었고 많은 전라북도 섬유산업 업체들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생산지를 이전하였으나 최근에는 고부가가

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전북에서 섬유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한국과 중국은 타 제품에 비해 섬유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최종재에 대한 관세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보다 높음. 경쟁력을 비교하면 남녀정장, 저지, 자켓 니트 등과 같은 제품에 있어 비교열위를 가지고 있음

분석에 의하면 한중 FTA로 인해 섬유산업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생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은 신소재의 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만 FTA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를 면사, 천연섬유의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친환경 소재 재료의 원가가 면사에 비해 7~8배 비싼 것을 고려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R&D에 중점 투자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야 함

특히, 닥섬유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고, 니트연과 쌍영방적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화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닥섬유 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함. 예를 아동복에 특화시키는 것은 소재가 거칠어 아동복 소재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R&D를 통한 소재의 유연도 개선을 통하여 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이와 더불어 전문 마케팅 센터가 필요(기존에 닥섬유 마케팅 센터를 쌍영방적에서 시도)

이와 더불어 제2, 제3의 닥섬유와 같은 기능성 소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개발, 수요자에 수요에 맞는 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임

최근 전북에 투자되고 있는 탄소섬유의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산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탄소소재를 연구중인 탄소기술원과 탄소관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신제품 개발 필요. 특히, 탄소 섬유의 직조부분의 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 탄소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탄소섬유를 활용한 섬유업계의 제품개발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3) 식품 산업의 경쟁력 및 대응방안

식품산업은 산업별 비중(업체수)은 높으나 영세성으로 인하여 체계화된 생산체계를 구축한 기업의 수가 적어 산업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은 분야임. 업체들이 R&D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주, 익산, 군산 이외에는 R&D 상주인력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

식품산업에서 FTA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 산업군 또는 한 개의 시장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없으며 FTA에 대한 지역별 특화 지원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임. 특히, 원산지 증명인 경우에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화형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은 시설 개선, 제품 개발 등과 수출 지원 체계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영세기업에 대해 시설지원, 제품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R&D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HACCP 등의 식품 안전성 강화, 인력 양성, 저산업화와 지역 소비를 상쇄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 필요.

R&D가 경쟁력 강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R&D를 통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포장 방법등의 개발을 통하여 외국에 수출 가능함. 식품가공의 경우 국내산 사용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급 문제가 많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시 사용 가능한 channel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마케팅 홍보의 강화 필요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보다는 발효식품 엑스포와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들이 바이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되며 생물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에서의 지원책의 강화도 기업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이와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은 전북도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현 단계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신속한 단지의 조성 이 가장 시급하며 (LH와의 협력 필요)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추진단과 지자체가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추진체계 정립 필요.

## 2. 영향력 최소화 방안

FTA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구조조정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들 수 있음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거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1) 전북의견 반영 방안

정부에서 FTA를 추진하는 경우 각 부처별 의견 수렴 과정과 지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음

현재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부처별 의견수렴에서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지자체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기는 어려우나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통상정책 또한 필요하므로 지자체가 대 정부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과 더불어 통상조직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함

<표 5-1> 한중 FTA 통상교섭 조직

직책	성명	소속	담당업무
수석대표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실무진	임주성	외교통상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총괄
	류호권	외교통상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국내대응총괄
	신덕	외교통상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국내대응2
	이수영	외교통상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대외협상총괄
	박정현	외교통상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국내대응 3, 규범
	양우성	외교통상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대외협상 2, 서비스, 투자
	이현미	외교통상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대외협상 3, 연구지원단, 홈페이지, 간부회의자료, 예산, 서무
	오미연	외교통상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기획단	예산, 서무

	성명	소속 및 직위	전공
통상교섭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학(국제통상)
	성재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법학(국제통상법)
	이재민	한양대 법전원 교수	법학(국제통상법)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FTA)
	최원목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법학(국제통상법)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경제학(농업경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통상법, 통상정책
	이재형	고려대 교수	통상법
	한홍열	한양대 교수	국제경제
	정서용	고려대 교수	통상법
	이주태	한국수입업협회장, 미도교역 대표이사	무역업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경제일반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무역전략
	강호갑	신영금융주식회사 회장	업계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FTA, 거시경제)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	경제학(국제통상)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경제학
	곽노성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동국대 교수	무역학
송영관	KA 연구위원	국제경제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역학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2) 구조조정 연착륙 지원 방안

FTA로 인해 영향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의 주력산업/지연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이 되면 이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과 더불어 관세유예기간을 늘려 FTA에 대한 영향력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연구결과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부분은 섬유산업과 식품산업이 큰 틀에서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함

전북의 경우에 섬유산업 분야는 사양산업이지만 섬유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세유예기간을 두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을 고도화 하기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북의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섬유 패션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필요함.

### “친환경 섬유 패션 클러스터 조성”

#### 배경:

- 한중 FTA로 인한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은 친환경 섬유패션 인프라의 구축으로 친환경 섬유 신소재 산업의 육성

#### 필요성:

- 대부분 섬유업체는 OEM 구조로 생산능력 취약하고 인력수급난으로 자동화 장비활용 생산성 향상 및 기술인력 양성의 기업수요 반영이 필요  
- 고부가가치 패션의류 생산유도 및 낙후된 섬유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섬유·패션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함

#### 사업내용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인접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섬유패션 클러스터 조성  
- 예산: 100억원(기반조성(60), 제품생산체계 구축(15), 인력양성(15), 마케팅지원(10))

#### 기대효과

- 섬유·패션 집적단지 구축을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의 효과적인 연착륙 지원 방안은 통상과정에서 수입 품목에 대한 위생 기준 강화를 들 수 있음. 위생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임.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가 필요함. 또한, 위생규정 강화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

정부에서는 식품산업 관련 R&D 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부산, 서울, 충청 권에 그 기능이 점차 빼앗기고 있음. 정부의 정책이 식품 R&D 또한 광역권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식품 R&D 센터의 역량강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식품의 비중이 높은 전북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 R&D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이와 더불어 “전북 식품산업 대중국 수출진흥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국가사업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전북 식품산업 대중국 수출진흥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

배경:

- 한중 FTA로 인해 농식품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따라 수입제한과 같은 방어적 입장 보다는 식품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와 같은 적극적 방안 마련 필요

필요성:

- 전북 식품산업의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시장내 물류 및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임  
- 식품기업이 수출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이 냉장, 냉동 물류창고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비용의 증가 뿐 아니라 수출입 계약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김

사업내용

- 중국(예: 청도)에 전북기업을 위한 냉장, 냉동저장 물류기지 구축  
- 사업비: 140억원(규모 5천평, 연면적4천평)

기대효과

- 전북 식품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  
-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품수급을 통한 수출입선 확보

## 제 2 절 한중 FTA의 대응 방안

### 1. 기업지원 강화

#### (1) 현지마케팅 강화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섬유 등 전라북도의 주력 수출품목의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완성차 기업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 및 중소기업의 기계업체에 대한 국제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섬유산업 또한 특화된 국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하고 조달시장 및 대형 유통망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경제사회시스템이 상이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유통망의 확보가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므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유통망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기업 협력 강화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전북과 중국기업 간 투자유치 및 산업 내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업이 더 이상 비용 비교우위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고부가가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라북도와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FTA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중국은 기업협력, 전북은 관세인하를 들어 중국과의 기업협력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FTA로 인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결성이 중요하므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투자유치 및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3) 기업 지원 강화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를 할 수 있는 R&D의 확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교역이 대부분 가공무역이어서 산업 내에서 분업을 이룰 수 있는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업 및 산업의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2. 지원시스템 개선

### (1)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 발굴

중국과의 FTA는 인적 물적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므로 기존에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 일부 성공적인 진출을 한 것을 벤치마킹 삼아 전북에서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업 아이템의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및 중국 기업과의 연계한 워크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시장을 진출할 때 중국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은 다른 도전이 있겠지만 하나의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 (2) 피해분야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노동집약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구조조정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에 경제 및 사회시스템이 우리나라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가 이와 연계하여 교역을 확대하고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무역조정제도의 확대를(피해를 20%에서 하향조정 필요) 통하여 FTA로 인한 피해보는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3. 지원 인프라 강화

#### (1)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대륙은 지역별로 특성이 뚜렷하여 만일 한 기업이 서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역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전북에서 유학을 하고 본국에 돌아갔으므로 이들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출 및 기업지원전략이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DB화 작업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중국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중국은 전북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이므로 수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중국의 시장동향, 무역규제사항, 국제통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전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한중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한중 FTA에 대하여 전북차원의 협상안(민감품목의 선정, 양허기간의 설정, 유보사항의 설정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함

국가수준과 전북의 민감품목을 선정하였고 이 가운데 양 품목간의 차이를 보이는 품목을 보면 전북은 전국에 비해 야채류, 육류를 비롯한 농산물품에서 민감품목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보호를 해야 하며 또한 섬유에서는 품목별로 민감품목이 전국과 전북에서 엇갈리게 나타남. 견(50)과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편물(60)은 전북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 국가수준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류와 그 부속품(62)에서는 전국은 경쟁력이 있으나 전북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북은 비철금속 가운데 아연과 그제품(79)과 철도용 기관차량 등(86)에서 전국대비 경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한중 FTA로 인하여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의 무역창출효과를 보면 의류와 부속품(HS62), 신발류(HS64)등 경공업 제품이 크며 육류, 어류 등 조제품(HS16)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HS79, HS86등 재료 및 중공업 제품은 무역창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한중 FTA에 대한 영향을 설문한 결과 영향이 없다는 49.3%, 긍정적 33.8%, 부정적 16.9% 순으로 영향이 없다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한중 FTA에 대해 미온적인 답을 보이고 있음. 이는 중국기업들의 한중FTA 추진에 대해 93.8%(167개사)의 절대적인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됨

전북기업의 관세철폐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즉시철폐가 가장 많은 47.2% 였고 3년 뒤 철폐가 18.9%로 관세를 초기에 철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음식료, 섬유류, 자동차 등은 초기의 관세철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계금속과 기타(철강, 선박등)의 경우에는 3-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됨

전북의 기업은 한중 FTA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이유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가 66.7%의 압도적인 답을 하였으며 한국 수입관세 철폐 등으로 인한 원

부자재 가격 인하 효과가 17.6%로 나타남. 중국기업의 경우는 기업간 협력이 중요한 반면 전북의 기업은 관세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 전북과 중국기업들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전북의 기업의 경우 한중 FTA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이 50%에 달하였고 소폭증가가 16.4%, 대폭증가가 8.4%인 반면 감소한다는 응답이 8%에 달하여 대체적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았음. 중국의 경우에 영업에 더 긍정적으로 보고 전북의 경우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중국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한중 FTA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중 FTA 대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 GM대우, 타타대우 등을 연계한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국가사업 추진, 그린카 산업 주도를 위한 핵심 R&D 사업(현재 7개사업 867억원) 지속적 발굴,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특장차집적화단지를 추진 등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됨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은 신소재의 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만 FTA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전라북도를 면사, 천연섬유의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친환경 소재 재료의 원가가 면사에 비해 7~8배 비싼 것을 고려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R&D에 중점 투자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야 함. 특히, 닥섬유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고, 니트연과 쌍영방적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화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닥섬유 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이 필요함. 최근 전북에 투자되고 있는 탄소섬유의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산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특히, 탄소 섬유는 직조부분의 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하며 탄소소재를 연구중인 탄소기술원과 탄소관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필요.

전라북도 식품산업 차원의 지원방안은 시설 개선, 제품 개발 등과 수출 지원 체계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영세기업에 대해 시설지원, 제품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R&D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HACCP 등의 식품 안전성 강화, 인력 양성, 저 산업화와 지역 소비를 상쇄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 필요. 식품산업에 있어

R&D가 경쟁력 강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R&D를 통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포장 방법등의 개발을 통하여 외국에 수출 가능함. 또한, 원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식품가공의 경우 국내산 사용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급 문제가 많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시 사용 가능한 channel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마케팅 홍보의 강화 필요.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보다는 발효식품 엑스포와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들이 바이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되며 지원기관(생물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 강화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은 전북도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현 단계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신속한 단지의 조성이 가장 시급하며 (LH와의 협력 필요)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추진단과 지자체가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추진체계 정립 필요.

전북의 경우에 섬유산업 분야는 사양산업이지만 섬유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세유예기간을 두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을 고도화 하기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북의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섬유 패션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필요함.

식품산업의 효과적인 연착륙 지원 방안은 통상과정에서 수입 품목에 대한 위생 기준 강화를 들 수 있음. 위생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임.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가 필요함. 또한, 위생규정 강화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 이와 더불어 FTA로 인하여 발생할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이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 식품산업 대중국 수출진흥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국가사업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섬유 등 전라북도의 주력 수출품목의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전북과 중국기업 간 투자유치 및 산업 내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FTA로 인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결성이 중요하

므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투자유치 및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를 할 수 있는 R&D의 확대 지원책 마련이 필요

중국과의 FTA는 인적 물적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므로 기존에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며 중국시장을 진출할 때 중국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노동집약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구조조정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기존의 무역조정제도의 확대를(피해를 20%에서 하향조정 필요) 통하여 FTA로 인한 피해보는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중국과의 FTA로 인하여 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전북에서 유학을 하고 본국에 돌아갔으므로 이들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출 및 기업지원전략 수립 필요

중국은 전북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이므로 수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중국의 시장동향, 무역규제사항, 국제통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참고문헌

- 김석진, 2011, “공산품 분야 한중 FTA 추진방향”
- 김태년, 2011, “한중 FTA 자동차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 한중 FTA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발표자료
- 남영숙 외,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변순 외, 2011,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SERI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어명근, 2012,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염규배, 2011, “한중 FTA섬유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한중 FTA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발표자료
- 임혜준, 2011,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FTA 국제 컨퍼런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향, KIEP
- 정인교, 2011, “중소기업의 FTA 활용”, FTA 국제 컨퍼런스,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향, KIEP
- 정환우, 2011, “동아시아 경제통합관점에서 본 한중 FTA의 의의와 과제”, EAI 이슈브리핑 No C2011-01, 한국무역연구원
- 정환우, 2011, “중국의 업종별 비관세, 투자장벽과 한중 FTA”, 한국무역연구원
- 지만수, 2011, “한중 FTA의 의미, 쟁점, 전망”, 한중 FTA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발표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2, “중국섬유산업 동향”
- 한국섬유마케팅센터, 2010, “중국 섬유시장 동향 및 대응전략”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6, “중국 자동차 통상 현황과 한중 FTA”

## 부록 1. 전국과 전북의 민감품목 분석

<부표 1> 전국과 전북의 민감품목 분석

코드	품목명(단위 : 천불)	전국	전북
0		NTG	NTG
1	산동물	2	2
2	육, 식용설육	1	1
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	2
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4	4
5	기타 동물성생산물	4	4
6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1	1
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4	4
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	1
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3	3
10	곡물	2	2
11	제분공업생산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4	4
12	채유용 종자, 과일, 각종 종자, 과일,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3	3
13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1	1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물	2	2
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	1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	3
17	당류와 설탕과자	1	4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3	3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1	1
20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3	1
21	각종 조제식료품	1	1
22	음료, 알코올, 식초	4	4
23	식품공업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2	2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1	1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4	4
26	광, 슬래к, 회	NTG	NTG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	4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1	1
29	유기화학품	1	1
30	의료용품	3	3
31	비료	4	4
32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2	1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1	1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소형용 페이스트	1	1
35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우, 효소	2	1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1	1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1	1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	1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	1
40	고무와 그 제품	1	1
41	원피 (모피제외) 와 가죽	1	1
42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4	4

코드	품목명(단위 : 천물)	전국	전북
43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	4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2	2
45	코르크와 그 제품	2	2
46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2	2
47	목재펠트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웨이스트와 스크랩	2	2
48	지와 판지 ,제지용펠트 ,지 또는 판지의 제품	1	1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4	4
50	견	3	1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1	1
52	면	1	1
53	기타 식물성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2	2
54	인조장섬유	1	1
55	인조단섬유	1	1
56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1	1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1	1
58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지수포	1	1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 ,공업용방직용 섬유제품	1	1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1	3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1	1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제외 )	1	3
63	기타 방직용섬유제품 ,세트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섬유제품 ,닝마	1	1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1	4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1	1
66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2	2
67	조세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4	4
68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재료의 제품	4	4
69	도지제품	2	2
70	유리와 유리제품	1	1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1	1
72	철강	1	1
73	철강의 제품	1	1
74	동과 그 제품	1	1
75	니켈과 그 제품	2	1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2	2
77		1	1
78	연과 그 제품	1	1
79	아연과 그 제품	1	3
80	주석과 그 제품	1	1
81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4	4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날이 ,스폰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1	1
83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1	1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	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	1
86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1	4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	1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1	1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NTG	NTG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1	1

코드	품목명(단위 : 천불)	전국	전북
	이들의부분품과 부속품		
91	시계와 그 부분품	4	4
92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	2
93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1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4	4
95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	4
96	잡품	1	1
97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4	4
98		1	1
99		1	1



## 부록 2. 도내 제조업체 대상 한중 FTA 설문결과 (경제통상진흥원)

조사기간 : 2011. 7 ~ 8(5주)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대상 : 전라북도 수출기업  
 표본추출 : 전수조사

회수율 : 미국 => 20.5% (225개중 46개 업체)  
 회수율 : E U => 40.2% (112개중 45개 업체)  
 회수율 : 중국 => 14.9% (355개중 53개 업체)

### 1) FTA에 대한 기업의 인식

<부표 2> FTA에 대한 기업의 인식

		FTA로 인한 자사성장가능성	중국내 자사제품의 시장규모	중국내 자사제품의 성장률
산업	자동차·부품	3.3	3.3	3.3
	정밀화학원료	3	3	3
	기계·부품	3.7	3.8	4.1
	석유·화학	3.7	3.1	3.1
	전기기기·부품	3.2	3.7	3.9
	종이·제품	2	1	2
	섬유·의류	3.5	4	4
	철강·금속	4.5	2.5	2.5
	식품	3.7	3.7	3.5
	기타	3.6	3.4	3.2
전체평균(5점만점)		3.5	3.4	3.5

한·중 FTA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기업 52.89%가 긍정적으로, 15.1%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을 만점기준으로 3.5의 평균을 보이고 있음. 도내 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철강·금속, 기계·부품, 석유·화학, 식품 => 기업의 성장가능성 ↑
- 종이·제품 => 기업의 성장가능성 ↓
- 철강·금속, 종이·제품 => 제품의 시장규모와 성장률 ↓

## 2) 수출증대를 위한 시급한 기업지원서비스 현안

- |                                    |                                  |
|------------------------------------|----------------------------------|
| 주 1. 제품규격, 국제표준, 제품시험 및 수출인증 관련 정보 | 2. 제품시험, 인증관련장비 및 관련서비스(테스트베드포함) |
| 3. 제품기획 또는 사업관련시장정보(예 : 시장규모 등)    | 4. 원자재 또는 유통, 공급망 관련정보           |
| 5. 인력채용 및 교육관련 정보                  | 6. 수출을 위한 통상 등 지문 및 컨설팅          |
| 7.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는 기술개발프로그램    | 8. 수출지원금, 마케팅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재무적지원  |

<부표 3>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수요

		1	2	3	4	5	6	7	8
산업	자동차·부품	1	-	1	1	-	-	-	3
	정밀화학원료	1	-	1	-	-	-	-	-
	기계·부품	5	1	-	2	-	2	3	5
	석유·화학	6	2	4	8	-	1	1	6
	전기기기·부품	5	1	2	5	1	1	1	4
	종이·제품	-	-	-	1	-	-	-	1
	섬유·의류	1	-	-	1	-	-	-	2
	철강·금속	1	-	1	1	-	-	-	-
	기타	2	2	-	1	-	2	1	4
전체	빈도	22	6	9	20	1	6	6	25
	%	24%	8%	10%	21%	1%	6%	8%	28%

한·중 FTA에 대응하여 시급한 기업지원서비스 분야는 수출지원금, 마케팅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재무적 지원과 제품규격, 국제표준, 제품시험 및 수출인증관련정보, 원자재 또는 유통·공급망 관련 정보인 것으로 나타남.

## 3) 해외정보에 대한 기업수요

- |                  |                           |
|------------------|---------------------------|
| 주 1. 상품정보        | 2. 해외시장 수요공급 동향 및 무역통계    |
| 3. 경쟁기업동향        | 4. 해외바이어정보                |
| 5. 최신기술 및 디자인 동향 | 6. 국가별 무역규제 및 수출입 관련 인증절차 |

〈부표 4〉 해외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

		1	2	3	4	5	6
산업	자동차·부품	-	2	1	3	1	3
	정밀화학원료	-	1	-	1	-	-
	기계·부품	1	6	4	8	1	5
	석유·화학	6	6	9	8	4	5
	전기기기·부품	5	4	7	5	3	2
	종이·제품	1	1	-	-	-	-
	섬유·의류	-	2	1	1	-	-
	철강·금속	-	1	-	-	-	2
	식품	4	5	4	5	3	4
	기타	2	5	2	5	2	2
전체	빈도	19	33	28	36	14	23
	%	35.80%	62.30%	52.80%	67.90%	26.40%	43.40%

해외시장확대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정보는 해외바이어정보 (67.9%), 해외시장 수요공급동향 및 무역통계 (62.3%)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경쟁기업동향 (52.8%)과 국가별 무역규제 및 수출입 관련 인증절차 (43.4%), 상품정보 (35.8%) 순으로 나옴.

- 자동차·부품기업, 기계·부품기업, 식품기업은 해외바이어정보와 국가별 무역규제 및 수출입 관련 인증절차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석유화학기업은 해외바이어정보와 경쟁기업동향에 대해, 전기기기·부품기업은 이와 더불어 상품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음.

#### 4) 해외지원 역점사항

- |                           |                   |
|---------------------------|-------------------|
| 주 1. 해외전시회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 2.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 |
| 3. 해외정보제공                 | 4. 해외 시장개척 자금지원   |
| 5. 주요거점지역 통상사무소설치 확대      | 6. 무역 전문인력 양성     |
| 7. 다양한 온라인마케팅 지원          | 8. 수출보험 등 위험관리지원  |
| 9. 해외통상지원 (수출인증 등)        |                   |

해외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자금지원(18.3%), 해외정보제공(17.5%)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수출보험 등 위험관리지원, 해외동상지원 순으로 나타남.

- 자동차·부품기업, 전기기기 부품, 식품에서 다양한 수요가 제기되었으며 자동차 부품에서는 해외정보제공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기기부품은 해외시장 개척 자금지원을 가장 시급한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지원도 높은 응답을 보임
- 식품의 경우 해외정보제공과 해외전시회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보험 등 위험관리지원이 높은 응답을 보여 타 산업과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부표 5〉 해외지원 역점사항

		1	2	3	4	5	6	7	8	9
산업	자동차·부품	1	1	4	3	-	3	1	2	2
	정밀화학원료	-	-	1	-	1	1	-	-	-
	기계·부품	1	-	-	3	-	-	-	-	1
	석유·화학	1	1	-	1	-	2	1	1	1
	전기기기·부품	4	2	3	5	2	1	2	2	3
	섬유·의류	1	-	3	1	-	1	1	-	1
	철강·금속	2	1	3	2	1	-	-	1	1
	식품	6	4	6	4	-	2	1	5	2
	기타	2	3	2	4	1	-	2	4	2
전체	빈도	18	12	22	23	5	10	8	15	13
	%	14.30%	9.50%	17.50%	18.30%	4.00%	7.90%	6.30%	11.90%	10.30%